

모든 것은 내게서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이유를 돌려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즐겁게 노력해갈 때 마술 주머니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내어줄 겁니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 전달

지난 8월 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2명에게 각각 치료비 400만 원(총 8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환자들의 어려운 사연을 전해 듣고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날 전달식에서는 권범선 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 이사 보인스님, 사무처장 해공스님,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참석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난치병 환자를 도와주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환자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지난 8월 10일~12일 3일간 제3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지역사회 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는 신규, 기존 자원봉사자 총 40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맡아서 진행했다.

교육을 모두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부여되며, 향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제25기 불교대학 수료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11일 제25기 불교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불자로서의 기초교리 및 불교사상 이해증진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28명의 교직원이 수료했다.

지도법사 능지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료를 맞이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불에 이르시길 기원드린다”며 격려했다.

